

## 남북한 무용교육의 상호이해를 위한 교과서 비교 연구\*

\*\* 이 정 민, \*\*\* 전 하 윤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결론
	참고문헌

---

\* 이 논문은 2019년 롯데장학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This research has been supported by the Lotte Foundation.

\*\* 교신저자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예술학 박사

\*\*\* 선화예술고등학교 무용부 강사

논문투고일 : 2019.07.27.

논문심사일 : 2019.08.17.

게재확정일 : 2019.09.01.

## A comparative study on dance textbooks for mutual understanding of North and South Korean dance education

Lee, Jung-min · Sungkyunkwan University

Chun, Ha-youn · Sunhwa Arts High School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mote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dance education by conducting a comparative research on dance sections of the first grade textbooks of South and North Korea.

As the result of the study, the differences in textbook structure and contents were found. First, the comparison of the textbook structure and format showed differences in the textbook name, number of books, number of pages, unit composition, instructional time, and illustrations. Second, the comparison of the contents of dance teaching-learning revealed differences in learning purpose, learning contents, teaching-learning process, and vocabulary of dance education. While South Korean dance education emphasized free expression and creation, North Korean dance education focused on learning basic knowledge and skills in dance. Despite of these differences, there were also the similarities in learning subjects and approach. Both countries had the similar learning subjects such as feelings of spring and movements of plants and animals. Also, they used the lyrical movements to broaden understanding in music.

There are pros and cons in South Korean dance education focusing on expressive lessons and in North Korean dance education focusing on the functional less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elements of homogeneity and heterogeneity of dance education in South and North Korea and to start seeking ways to integrate dance education of two countries.

〈key words〉 dance education, textbook, South and North Korea, Korean dance, North Korean dance

〈주요어〉 무용교육, 교과서, 남북한, 한국춤, 북한춤

2018년 2월 평창올림픽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개막식 ‘행동하는 평화’에서의 한국춤 공연과 같은 해 9월 평양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펼쳐진 북한 집단체조무용 ‘빛나는 조국’의 춤 공연을 보면, 한복을 갖춰 입은 무용수들의 곡선적인 춤사위, 춤의 역동성, 태극 문양과 한반도 지도 형태를 만들어내는 군무 대형 구도 등 표면적으로 남북한의 춤을 ‘한민족의 춤’으로 결부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 보면 춤의 시작인 교육의 목적과 방법, 내용, 춤에 담긴 이념에 이르기까지 현재의 춤을 있게 한 일련의 과정이 이질적이기에 분단국가로서 보낸 세월이 초래한 단절된 춤의 흔적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왜 같은 움직임으로 다른 몸짓의 이야기를 전달하는가? 남북한 춤이 가진 이질성을 극복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감대는 존재하는가?

이 연구는 남북한 춤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분단선 너머 북한의 춤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남한 초등학교와 북한 소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무용교육 영역의 비교연구를 통해 남북한 무용교육의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것이다.

북한 춤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중반 민속놀이 연구에서 출발하였다. 김한초(1986)는 함북 재가증마을에 전해져 내려오는 가면극의 《주지춤놀이》, 임재해(1996)는 민속인형극인 《꼭두각시놀음》을 통해 북한의 민속극 양상을 고찰하였다. 무용 예술로서 북한춤을 조명한 연구는 김용경(1989), 용미리(1991), 황경숙(1994), 정미래(1997), 이병옥(2001), 한경자(2005) 등으로 이어진다. 이들은 북한 춤이 주체사상의 수단이자 사회주의 문예이론에 입각하여 발전하였음을 고찰하였고, 《조국의 진달래》, 《눈이 내린다》, 《키춤》, 《사과풍년》의 4대 무용명작부터 1992년에 발표된 김정일의 『무용예술론』에 의거한 무용소품 창작, 2000년대 ‘대집단 체조와 예술공연’ 장르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북한 춤의 흐름과 특징을 지속적으로 조명하였다. 남북 무용교육에 대한 비교연구는 이선경(2001)의 남북 유아 무용교육 비교연구를 기점으로, 1960년대 남북한 무용교육의 현황을 비교한 박은희(2002), 1970년대 남북한 무용교육을 비교분석한 김운미(2003)의 연구가 연이어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후 남북한 무용교육 비교연구는 수행되지 못하였고, 2013년 발행된 북한 『음악무용』 교과서를 중심으로 음악교육의 변화를 살펴본 김인선(2015), 북한의 과거 『음악』 교

과서와 현행 『음악무용』교과서를 비교하여 변화의 양상을 연구한 승윤희(2017)의 연구를 통해 최근 김정은 체제의 학교교육에서 무용교과의 비중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최근의 남북한 동질성 모색 및 통일 대비 교과 교육 통합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와 학계의 노력에 발맞추어 단절된 시공간 속에서 이루어진 남북한의 무용교육 현장을 들여다보고, 오늘의 춤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시급함을 인식하였다. 무엇보다 교과서는 “국가의 의도가 교육적으로 현실화된” 실체이기에 그 내용을 통해 국가의 교육 이념 및 근간을 파악할 수 있으며, 남북한 교과서 연구는 “동질성 회복의 일단을 살피는” 작업으로서 의미를 가진다(엄현숙, 2018:148; 이관규, 2016:158). 따라서 2015년에 개정된 남한 초등학교 1학년 『봄』, 『여름』, 『가을』, 『겨울』교과서와 2013년에 개편된 북한 소학교 1학년 『음악무용』교과서를 대상으로 교과서의 구성 및 체제, 무용 교수-학습내용을 비교함으로써 남북한 춤의 기저를 파악하고, 이러한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남북한 무용교육 통합방안 마련을 위한 담론의 길로 나아가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남북한 교과서 비교연구의 방법론 고찰

지금까지 남북한 교과서 비교연구는 국어, 수학, 사회, 음악, 미술 등 다양한 교과 분야에서 수행되었다. 이에 교과별 남북한 교과서 비교연구의 방법론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분석 준거 마련에 참조하였다.

“북한 소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2013)와 남한 초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2017)의 비교 연구”는 남북한 국어교과서를 비교하고 해석 도구로서 남한의 교사용 지도서와 북한의 국어교수안을 사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교과서 외형 체제, 단원편성 체제, 언어관, 교과 성격 및 목표, 교과서 내용을 비교하였고, 그에 따른 특징을 도출하였다(진용성, 차해나, 2018:60-62).

“남한과 북한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의 구성 체제 및 학습 내용 비교”는 남북한 수학 교과서를 대상으로 교과서의 단원 구성 체제와 차시 구성 체제, 학습 내용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였다(이화영, 임미인, 김주창, 이환철, 2018:371). 더불어 “남북한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의 학습 내용 비교 분석-1,2,3학년을 중심으로-”는 수학 학습 내용 및 학습 내용 요소를 비교하여 학습 내용의 지도 시기 및 학습 순서의 차이점, 특정 내용의 지도 유무를 분석하였다(이화영, 임미인, 김주창, 2018:625-627).

“남북한 교과서 비교분석을 통한 통일교육 모색을 위한 연구”는 남한 초등학교 1-2학년 바른생활 교과서와 북한 소학교 1-2학년 사회주의 도덕 교과서를 대상으로 내용구조, 즉 교과목표, 체제와 내용, 동일 주제에 대한 학습 내용 비교를 통해 교과 내용구조의 동질구조와 이질구조를 분석하였다(김도일, 2013:5). 옥일남(2014)은 “남북한 사회과 교과서 비교 분석을 통한 상호이해교육방안 탐색”에서 남한 사회과 교과서의 북한 및 통일 관련 내용과 북한 사회과 교과서의 남한 및 통일 관련 내용을 비교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습내용의 주안점이나 제시 방식의 특징을 포착하여 중심 주제를 구성해 상호이해 교육 방안을 논의하였다(옥일남, 2014: 1-2, 20-24).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음악교과서의 통합 방안 연구-초등학교를 중심으로-”는 남북한 교육 이념 및 정책, 음악 교육 과정, 음악교과서 비교분석을 통해 남북한 초등학교 음악교과서 통합방안을 마련하였다. 교과서 비교 항목은 외적 체제로서 관형과 지질, 활자, 삽화와 사진, 쪽수, 표지를 살펴보고, 내적 체제로서 가창영역, 시창영역, 기악영역, 감상영역, 창작영역을 각기 비교분석하였다(서현진, 2005:25, 35).

“남북한 중학교 미술교육 통합방안 연구: 미술교육과정 비교 및 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는 남북한 교육제도, 교육과정, 교과서 비교 및 탈북자 면담,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미술교육 통합방안을 제시하였다. 교과서 분석의 경우 중학교 미술 교과서의 외형체제, 내용구성, 표현재료, 학습활동, 사용언어, 참고작품 등을 비교하였다(김연아, 2019:48).

교과별 남북한 교과서 비교연구의 방법론을 검토한 결과, 공통적으로 단위 및 차시 구성 체제를 비교하고, 학습 주제 및 내용에 나타난 특성 혹은 동질성과 이질성의 요소를 도출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연구는 북한 자료 확보의 한계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교과서의 외형 체제와 내용을 동시에 살펴보고 있으며, 연구를 통해 상호이해방안 및 교과교육 통합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 2. 무용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과서 분석 근거

본 연구는 무용을 중심으로 한 남북한 교과서 비교연구의 첫 시도이므로, 선행 연구의 보편적 방법론을 적용하고,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연구대상은 남한 초등학교 1학년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교과서와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북한 소학교 1학년의 『음악무용』 교과서와 교사용 『음악무용교수안』이다. 외형 분석의 경우 전체적인 구성과 체재를 비교하였고, 내용 분석의 경우 남한의 즐거운 생활 교과에 나타난 각종 신체 표현활동과 북한의 무용 활동 및 노래형상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의 절차 및 내용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첫째, 교과서 분석 근거를 마련한다. 둘째, 마련된 근거에 따라 교과서 구성 및 체재와 무용 교수-학습 내용을 비교 분석한다. 셋째, 남북한 무용교육에서 나타나는 유사성과 차이점을 도출하고,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무용교육 통합의 가능성과 지향점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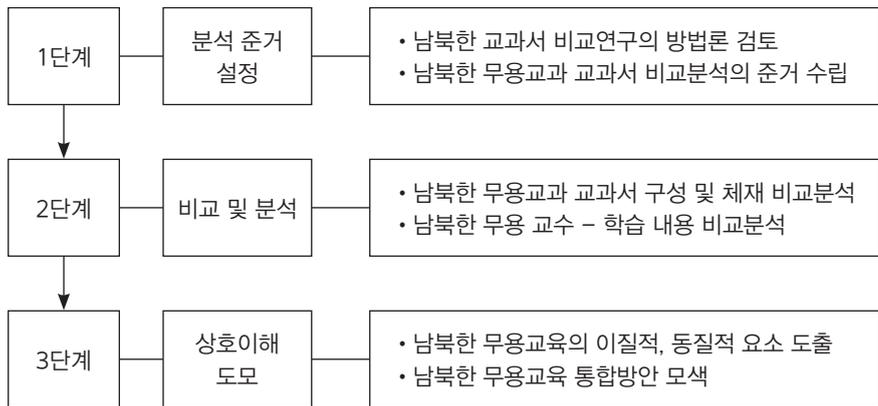


그림 1. 연구 절차 및 내용

교과서 구성 및 체재의 경우, 교과서의 외형에서 볼 수 있는 교과명, 저자명, 발행연도, 크기, 쪽수, 삽화 유무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전체 단원의 편성 및 수업 시수, 무용학습 단원의 개수 및 시수 비중을 비교하고, 무용교육에 사용되는 어휘 역시 비교할 것이다. 무용 교수-학습 내용의 경우, 교과서 내용과 교사용 지도서에서 볼 수 있는 단원명 및 차시명, 학습 목표, 학습 주제 및 내용, 차시별 교수-학습 과정, 지도의 주안점 등을 비교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초등 무용교육에서 나타나는 교과 인식의 차이에서부터 남북한이 공유하는 동질적 요소와 서로가 공유할 수 없는 이질적 요소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III 연구결과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남북한 모두 통합교과 교과서에서 무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수-학습내용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무용 혹은 춤을 언급하거나, 남북한이 내린 무용의 정의<sup>1)</sup> 내에서 포괄할 수 있는 신체 표현활동과 노래형상 활동을 무용교육의 내용으로 선정하였다.

## 1. 남북한 교과서 구성 및 체재 비교

남북한 교과서의 구성 및 체재를 비교한 결과, 그에 따른 특징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남한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각 범위 안에서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의 세 교과 학습내용을 통합한 주제별 교과서이다. 지도서에 따르면 주제 학습은 “경험의 계속적인 성장”, “활동을 통한 학습”, “학생의 적성과 흥미 존중”, “실생활 문제 해결력”, “적극적인 지식 구성자로서의 학습자” 등 진보주의 및 구성주의를 반영하는 교육의 한 양식(교육부, 2017c:26)이다. 주제별 교과서는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되었고,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주제별 학습시간을 4주로 확대하고 기존의 40분 단위 차시 수업을 80분 단위 블록 차시 위주로 개발”하는 등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특히 주제별 교과서는 교사가 교과서 진도 나가기로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적 수업 교재”를 바탕으로 교사와 학생이 “수업 여건에 맞춰 재구성하는 교과서”(교육부, 2017c:10-13, 16)로 개발되었다. 이에 따라 하나의 교과에 집중되는 방식이 아닌, 주제별로 다양한 교과가 적절히 분산된 차시별 학습이 이루어지며, 4권의 교과서에 일부 무용 학습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를 가진다. 즉, <표 1>과 같이 4권의 교과서 전체 172개의 차시 중 11개의 차시에서 무용 학습이 이루어지며, 이는 교과서 내 6.4%의 비중을 차지한다.

<sup>1)</sup> 남한에서 무용의 사전적 정의는 “음악에 맞추어 율동적인 동작으로 감정과 의지를 표현함. 또는 그런 예술”이다. 북한에서는 무용을 “사람들의 감정과 생활을 음악에 맞춰 팔과 손, 다리동작으로 형상”하는 것으로 정의한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무용”; 안영옥, 양월미, 장명숙, 신은영, 2014:20).

세 교과가 통합된 주제별 교과서를 사용하는 남한과 달리 북한은 음악과 무용, 두 교과가 통합된 교과서를 사용한다. 북한 김정은 체제에서 무용은 교과로 인정받아 2013년부터 『음악무용』교과서를 발행하고 있다. 기존의 『음악』 교과서가 무용 교과와 통합 개편되며 달라진 점은 “기악 활동뿐만 아니라 감상 활동이 전혀 없는 것에 비해 많은 분량의 무용 활동이 포함된 것”이다. 또한 단원의 “마지막에는 공연 활동으로 마무리 하는 것도 『음악무용』 교과서의 주목할 만한 변화”(송윤희, 2017:867)이다. 이같이 북한에서는 음악과 무용 교과가 통합된 교과서가 발행되고 있으며 <표 1>과 같이 단일 교과서 22개<sup>2)</sup>의 소단원 중 음악무용 공연을 하는 마지막 단원까지 포함하여 총 18개의 소단원에서 무용을 학습한다. 교과서 내 무용학습 비중은 81.8%로 남한의 6.4%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러나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의 교과가 통합 운영되는 남한과 달리 북한은 사회, 도덕, 자연, 미술, 체육 교과목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 교과들을 통합한 단원의 총계에서 무용 학습 비중을 살펴본다면 남한의 무용 학습 비중과의 격차는 줄어들 것이다.

표 1. 남한 초등학교 1학년과 북한 소학교 1학년 교과서 구성 및 체제 비교

	남한	북한
교과서명	「봄 1-1」, 「여름 1-1」, 「가을 1-2」, 「겨울 1-2」	「음악무용, 소학교1」
저자명	한국교원대학교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주제별 교과서 초등 통합 편찬 위원회	양월미, 장명숙, 림옥화
발행연도	2017년	2013년
쪽수	「봄 1-1」: 103쪽, 「여름 1-1」: 135쪽, 「가을 1-2」: 143쪽, 「겨울 1-2」: 137쪽	47쪽
삽화 유무	그림, 사진, 악보 있음	그림, 악보 있음
크기	22cm x 28cm	15cm x 21cm
전체 단원 편성	「봄 1-1」: 단원명 2개, 차시명 32개 「여름 1-1」: 단원명 2개, 차시명 45개 「가을 1-2」: 단원명 2개, 차시명 49개 「겨울 1-2」: 단원명 2개, 차시명 46개	대단원 10개, 소단원 22개
전체 수업 시수	301시수	68시수
무용학습 단원수	차시명 11개	소단원 18개
무용학습 시수	16시수	34시수

<sup>2)</sup> 소단원 21개와 마지막 대단원 1개를 합하여 22개이다. 마지막 대단원은 음악무용 발표회를 하는 내용으로, 소단원의 구분 없이 대단원으로만 제시되었다. 따라서 무용 학습 비중 통계에서 하나의 소단원으로 취급하였다.

둘째, 남북한 교과서의 외형과 지면 편집에 드러난 특징을 살펴보면, 남한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의 크기는 22cm×28cm로, 북한 소학교 1학년 교과서의 15cm×21cm보다 큰 편이다. 지면 편집에 있어 남한은 <그림 2>와 같이 ‘~해봅시다’라는 간단한 지시어와 함께 자유롭게 움직이는 아이들의 그림과 주제별 사진, 노래 악보를 차시별 학습내용에 따라 적절히 배치하고 있다.



그림 2. 남한 교과서의 지면 편집 방식 및 이미지 활용 사례  
(교육부, 2017e:64-65)

반면, 북한은 <그림 3>과 같이 악곡을 가장 먼저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음악 및 무용 학습내용을 배치한다. 악보 지면에는 노래를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그림이 있고, 음악 및 무용 학습 내용이 실린 쪽에는 활동을 지시하는 지시문과 그림이 있다. 특히 무용 동작의 실행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보여주는 그림을 배치하고 있어, 지면 편집과 이미지 활용 면에서 남한과 차이를 보인다.



그림 3. 북한 교과서의 지면 편집 방식 및 이미지 활용 사례  
(양월미, 장명숙, 림옥화, 2013:16-17)

셋째, 남북한 수업 시수와 교과서 쪽수를 살펴본 결과, 남한 초등학교 1학년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통합 교과 301시수 중 음악, 미술, 체육, 무용 등 예체능 교과 학습이 이루어지는 즐거운 생활의 시수는 163시수로 약 54.2%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 중 무용 학습은 16시수로 즐거운 생활 교과의 9.8% 정도로 이루어진다. 또한, 4권의 교과서 전체 518쪽 가운데 무용 학습 차시를 할애하는 지면은 24쪽으로 4.6%의 비중을 보인다. 북한 소학교 1학년의 경우 전체 68시수의 50%인 34시수에서 무용을 학습한다. 교과서 전체 47쪽 중 무용 학습 단원에 할애하는 지면은 37쪽으로 78.7%의 비중을 차지한다. 수업 시수와 교과서 쪽수에 있어 남한의 무용교육이 북한보다 낮은 비중을 보이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초등학교 교과 운영 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 2. 남북한 무용 교수-학습 내용 비교

남북한 무용 교수-학습 내용을 비교한 결과, 무용교육의 목적 및 학습 목표, 학습 내용, 교수-학습 과정, 어휘의 측면에서 남북한 무용 교육의 차이점을 발견하고, 학습 주제 및 학습 방식에 있어 유사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남북한 단원별 교수-학습 목표<sup>3)</sup>와 자세한 내용은 <표 2>, <표 3>과 같다.

표 2. 남한 초등학교 1학년 즐거운 생활 교과의 무용 교수-학습 내용

대단원명	차시명	학습목표	학습내용	차시수	교과서 쪽수
학교에 가면	어깨동무해요	친구와 친해지는 놀이하기	다양한 신체 놀이 하며 <어깨동무> 노래 부르기	1	「봄1-1」 40-41
도란도란 봄 동산	봄애 반가워	봄 동식물 표현하기, 놀이와 게임하면서 봄나들이 즐기기	<봄이 왔어요> 노래 부르며 다양한 방향, 보폭, 모양으로 걷기	2	「봄1-1」 62-63
	봄을 따라 해요	봄 동식물 표현하기	봄 동식물 움직임과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신체로 다양하게 표현	2	「봄1-1」 64-67
	새싹과 꽃	봄 동식물 표현하기	새싹, 꽃, 벌과 나비 등 봄 동식물의 모습과 봄 노랫말을 몸으로 표현	2	「봄1-1」 82-83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 집은 웃음바다	가족과 친척이 한 일 표현하기	<우리 집은 웃음바다> 노랫말 신체 표현	2	「여름1-1」 40-41
	사이좋게 불러요	가족과 친척이 한 일 표현하기	<우리 형제> 노래 들으며, 몸으로 표현(오금주기, 어깨 들썩임, 고갯짓)	2	「여름1-1」 66-67
여름 나라	여름 나라에 다녀왔어요	여름 모습과 느낌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여름 생활 도구 표현하기	여름 날씨, 생활, 도구, 풍경 등을 몸으로 표현, 모둠별 표현 및 관찰	1	「여름1-1」 130-131

현규의 추석	달두 달두 밝다	여러 민속놀이 하기	〈강강술래〉, 〈달두 달두 밝다〉부르며 함께 강강술래 놀이 동작하기	1	「겨울1-2」 134-135
여기는 우리나라	노래로 부르는 우리나라	우리나라 상징을 표현하기	〈아름다운 나라〉 노래 부르며 노랫말 신체 표현	1	「겨울1-2」 44-45
우리의 겨울	눈송이	겨울의 모습과 느낌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눈송이〉의 노랫말, 눈 내리는 모습 몸으로 표현, 모듬별 표현 및 감상	1	「겨울1-2」 102-103
	사랑의 마음	겨울의 모습과 느낌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사랑의 마음〉 노랫말 신체 표현, 모듬별 표현 및 감상	1	「겨울1-2」 130-131

표 3. 북한 소학교 1학년 음악무용 교과목의 무용 교수-학습 내용

대단원명	소단원명	학습목표	학습내용	차시수	교과서 쪽수
해님의 노래	해님과 아기꽃	대원수님을 해님으로 모시고 김정은원수님의 경도를 받들도록 교양하기	음높이의 몸동작 표현	1	6-7
	볼후의 고전적명작 《조선의 노래》	무용기초동작(몸의 방향, 팔의 자세)을 정확히 수행하기	8가지 몸의 방향, 8가지 팔의 자세	1	8-9
즐겁게 부르지요	재미나는 음악시간	무용기초동작(팔놀리기, 손모양)을 정확히 하기	음높이의 몸동작 표현, 4가지 손놀림, 팔놀리기	2	10-11
	너도 나도 즐겁게 하나 둘 셋	여러 가지 동작을 결합하여 즐겁고 명랑하게 노래 부르기	〈너도 나도 즐겁게 하나 둘 셋〉 노래 형상 (손벽치기, 어깨치기, 무릎치기, 팔펴기, 발걸음, 땀뿜기)	3	12-13
따뜻한 봄을 그리며	제비	리듬놀이와 소리 놀이를 재미나게 하기	음높이의 몸동작 표현, 새의 노래소리 몸동작 표현	2	14-15
	봄나들이	무용기초동작(걷기)을 익히기	사뿐사뿐 걷기	2	16-17
	산딸기	노래를 무용기초동작 (고개숙이기)을 배합하여 부르기	귀엽게 고개 쓰기	2	18-20
놀이하며 부르지요	한주일의 노래	여러 가지 민속놀이 즐거하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줄넘기하기	2	21
	토끼야	무용기초동작(뛰기)을 생동하게 수행하기	음높이의 몸동작 표현, 〈토끼야〉 노래형상, 토끼처럼 강충 뛰기	3	24-25
해님따라 필래요	금강산의 목란꽃	무용기초동작(어깨쓰기) 을 정확히 하기	어깨 살짝 쓰기	2	28-29

3) 북한의 교수안에 소단원별 무용 관련 교수목표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사상 교양의 목표만 기재하였다.

해님따라 필래요	금강산의 목란꽃	무용기초동작(어깨쓰기) 을 정확히 하기	어깨 살짝 쓰기	2	28-29
사랑속에 피어나요	걱정많은 우리 엄마	무용기초동작 (무릎굽히기)을 정확히 수행하기	무릎 천천히 굽히기, <걱정많은 우리 엄마> 노래에 맞춰 형상을동	2	30-31
	내가 제일 곱대요	무용기초동작(팔감기)을 부드럽게 수행하기	<내가 제일 곱대요> 노래형상 및 형상무용, 팔 부드럽게 감기	3	32-33
웃음소리 노래소리 행복넘쳐요	웃음많은 우리 집	형상물동을 결합하여 흥겹게 노래 부르기, 리듬놀이 재미나게 하기	<웃음많은 우리 집> 노래형상	2	34-35
	복 많이 받으세요	무용기초동작(허리쓰기) 을 정확히 수행하기	허리 천천히 굽히기	2	36-37
축복의 미움답아	제일 기쁜 2 월명절	무용기초동작(팔메기)을 곱게 하기	팔 곱게 메기	1	38-40
내 희망 노래해요	장군님 군대될래요	나라를 지키는 인민군대가 되겠다는 희망을 가지도록 교양하기	소리 높이를 몸동작으로 표현하기	1	42-43
	유희곡	무용기초동작(손벽치기) 을 능숙히 하기	손벽춤	2	44-46
즐거운 우리 무대		배운 내용을 다지고 경연을 통해 가창능력과 노래형상을 위한 동작 수행 능력 키우기	음악무용경연 (형상무용)	1	47

첫째, 남북한 무용 교수-학습 내용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용이라는 특정 분야에 대한 언급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가의 여부이다. 남한의 초등학교 교육에서 무용은 표현 활동의 일환으로서 ‘몸으로 표현’ 또는 ‘신체 표현 활동’이라는 어휘로 통칭된다. 춤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지식이나 개념에 관한 학습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다양한 주제에 따른 표현 활동이 반복적으로 전개된다. 또한 북한과 같이 무용기초동작을 습득하는 과정이 교과서 학습 내용에 반영되지 않았다. 무용 교수-학습의 주안점을 무용예술에 대한 이론 및 실기의 교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음악과 접목된 움직임 표현 교육에 두고,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따라서 “표현 놀이를 해 보는 것 자체가 학습의 목적이다. 활동이 학습의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이 되는 경우도 많지만,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에게는 무언가를 위한 학습뿐만 아니라 활동 그 자체로도 유용하고 의미 있는 학습 경험”(교육부, 2017d:36)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차시별 학습목표는 어깨동무 신체 놀이, 강강술래 놀이의 ‘놀이하기’가 2개 차시, 각 계절의 모습과 느낌, 나라의 상징, 동식물, 일상 경험을 ‘표현하기’가 9개 차시로 대부분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수업이 진행된다.

북한의 경우, ‘음악무용’이란 교과명에서도 드러나듯 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

고 예술로서의 무용과 체육에서의 무용을 구분한다.<sup>4)</sup> 음악 학습에 움직임 활용하는 것은 남한의 교육과 유사하나 북한은 무용교육의 목적을 무용 기초 지식 및 기초 실기 능력 습득에 두고, 군중무용을 출 줄 아는 인민을 양성하기 위해 점진적인 무용 실기 교육을 진행한다. 소단원의 학습목표는 사상 교양, 음악 학습, 무용 학습 순으로 제시되며,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교재내용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안영옥, 양월미, 장명숙, 신은영, 2013:4)해야 한다. 이같이 사상 교양은 북한 교육의 근본을 이루는 것으로서 모든 학습의 기저에 깔려 있다. 전체 21개 악곡 중 9개의 곡이 나라와 원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며, 이러한 노래에 맞춰 무용을 하는 것은 노래의 내용을 내면화하여 사상을 교양시키기 위함이다. 음악 학습은 제창, 리듬놀이, 소리놀이, 노래형상을 목표로 하고, 무용 학습은 무용기초동작 수행을 목표로 신체 부위별 동작 학습이 진행된다.

둘째, 학습 내용에 있어 남한의 무용교육은 노래와 더불어 이루어지거나 신체 자체에 집중하여 수행되었다. 차시별 학습 내용을 살펴보면, 11개의 차시 중 음악을 듣고 노랫말이나 가락을 표현하거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차시가 9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음악 없이 신체 표현에 집중하는 차시는 ‘새싹과 꽃’, ‘여름 나라에 다녀왔어요’ 두 차시로 <그림 4>와 같이 봄에 볼 수 있는 동식물이나 여름의 자연과 경험을 몸으로 형상하는 활동이었다. 무엇보다 1학년의 신체 학습은 특정 동작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흥겨운 분위기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마음껏 표현하는 데 비중”(교육부, 2017d:361)을 두기 때문에, 무용에 대해 이론적으로 설명하거나 전문적인 무용 동작을 배우는 학습 내용은 없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 주제에 따라 표현 학습이 진행되므로 움직임 기능에 따라 학습 내용이 연결되거나 심화되는 계열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4. 남한 교과서의 무용 학습 사례(교육부, 2017e:82; 교육부, 2017f:130)

<sup>4)</sup> 북한은 예술무용과 체육무용을 명확히 구분한다. 예술무용에는 민족무용, 발레, 현대무용이 있고, 음악무용 및 예술 교과에서 배운다. 체육무용에는 체조무용, 수중무용, 빙상무용이 있고, 체육 교과에서 배운다.

한편, 북한의 무용 학습내용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무용 학습과 음악과 함께 이루어지는 무용 학습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무용 학습은 최승희가 저술한 『조선아동무용기본』<sup>5)</sup>에 나오는 동작을 기본으로 민족무용 동작을 배우는 것이다. <그림 5>와 같이 11개의 소단원에서 손, 팔, 어깨, 머리, 허리, 무릎과 같이 신체 부위 별로 동작을 습득하고, 일상 움직임과는 다른 무용에서의 걷기 및 뛰기 동작을 배운다. 또한 동작을 정해진 박자에 맞춰 움직이고 호흡과 함께 수행한다. 후자의 무용 학습은 음높이를 몸동작으로 표현하거나 손뼉치기와 같은 신체움직임을 통해 리듬을 표현하거나 노랫말에 맞춰 움직임을 표현하는 노래형상 활동으로 5개의 소단원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학습내용들은 음악 학습의 일환으로 수행되지만 신체를 움직여 리듬이나 노래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무용교육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 밖에 1개의 소단원에서 민속놀이를 학습하고, 마지막 단원에서 음악무용경연을 하는 것으로 학년을 마무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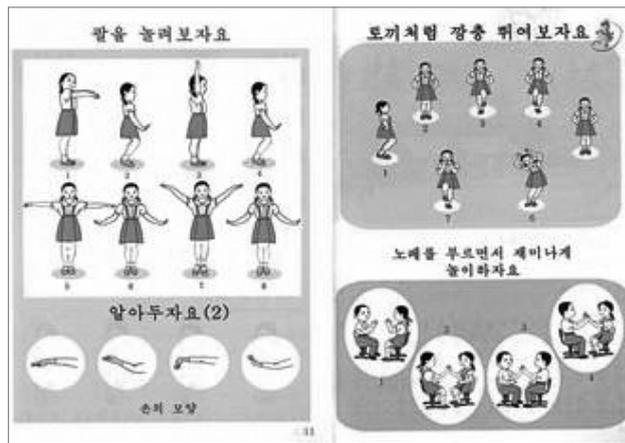


그림 5. 북한 교과서의 무용 학습 사례  
(양월미, 장명숙, 림옥화, 2013:11, 25)

셋째, 교수-학습 과정에 있어 남한은 준비하기, 탐색하기, 표현 놀이하기, 느낌 나누기의 단계로 진행된다. 준비 단계에서는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이해하고, 활동에 대한 동기를 갖게” 한다. 탐색 단계에서는 “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것, 알아야 할 내용, 익혀야 할 기능,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구상”한다. 표현 놀이는 “교수-학습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계”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율적, 참여적, 창의적으로 표현 놀이를 한다. 느낌 나누기 단계에서는 “표현 놀이를 통해 익힌 것을 다른 활동에 적용하여 일반화”하고 “활동 과정에서 느

<sup>5)</sup> 월북 무용가인 최승희는 조선민족무용의 체계를 정립하고, 이를 아동무용교육에 적용할 수 있도록 『조선아동무용기본』을 저술하였다.

긴 점을 서로 나누게 하여 활동 관련 요소들을 내면화하고, 나아가서는 다른 활동에 대한 동기를 유발”(교육부, 2017d:36)한다. 계절의 모습과 느낌을 몸으로 표현하는 모둠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왜,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표현했는지를 발표”(교육부, 2017d:378-379)하는 시간을 갖는다. 몸으로 표현하기를 어려워하는 경우에는 “선율에 따라 손가락 움직이기, 강약에 따라 몸 움직이기 등의 간단한 신체 표현에서부터 시작하여 테마가 있는 음악을 듣고 이를 표현”(교육부, 2017d:378)하는 것으로 심화한다. 이에 교사의 일방적 수업 진행을 지양하고, 학생들이 주도적이고 자유롭게 놀이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교수-학습이 이루어진다.

북한은 기초훈련, 새 지식 가르치기, 다지기, 과제제시 단계로 진행된다. 기초훈련 단계에서는 이전에 배운 학습내용을 상기하고 복습한다. 새 지식 가르치기 단계에서는 새로운 악곡을 배우거나 무용 동작을 배운다. 무용 동작을 배울 때는 동작의 정의, 기능, 중요성, 종류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교사의 시범을 관찰한 후 동작을 직접 해본다. 다지기 단계에서는 음악에 맞춰 동작을 하거나 혼자 또는 여럿이 동작을 해본 후 부족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는지 총화하고 시정한다.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까지 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학습이 마무리된다. 이처럼 북한에서는 놀이를 통해 학습하는 활동이 적으며, 무용 활동에서 느낀 생각과 감정을 소통하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남한과 달리, 북한에서는 교사가 수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단독적,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수하는 방식으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무용 학습 지시어 및 어휘 사용에 있어 남한은 ‘몸으로 표현해요’, ‘흥내 내어’, ‘따라해’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표현 활동 전후로 ‘이야기해요’, ‘설명해요’와 같은 제안을 하여 신체 표현을 언어로 해석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지도 어휘를 통해 남한 교과서에는 무용, 예술, 춤의 개념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지만 학생들이 예술 창작의 기본적인 과정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경우, ‘동작한다’, ‘수행한다’라는 어휘가 자주 사용되고, 동작 수행 시 ‘정확히’ 할 것을 강조한다. 또한, 무용을 ‘춤’이라고 부르거나 배운 동작을 음악에 맞춰 ‘춤추기’를 지시한다. 이러한 지도 어휘를 통해 북한이 무용을 신체활동이나 표현활동의 범주보다는 기능적으로 완성된 형태를 갖춘 예술 장르의 일환으로 바라보며, 동작 학습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 무용 교수-학습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학습 주제 및 학습 방식 면에서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표 2>, <표 3>의 학습 내용에 나타나듯, 남북한 모두 봄의 느낌이나 동식물 움직임을 신체로 표현하는 단원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민속놀이를 주제로 남한에서는 강강술래, 북한에서는 긴 줄넘기 놀이를 학습한다.

더불어 학습 방식에 있어서 남북한 모두 음악을 수반한 움직임 교육, 즉 노랫말 신체 표현 활동을 하는 유사점이 있다. 남한의 음악 학습에서 “신체 표현 활동은 사물의 특징적인 부분을 몸으로 나타냄으로써 제재곡을 좀 더 가까이 느끼고 이해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이며, 음악의 “개념과 현상을 더 구체적이며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악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활동”(교육부, 2017d:301)이다. 그 중 노랫말 신체 표현 활동은 가사에 맞게 동작을 묘사하는 것으로, “하늘 높이 올라라”라는 가사에는 손을 위로 올리는 식이다. 또한 가락의 높이 표현 활동은 “가락의 높이를 손과 신체로 표현”(교육부, 2017d:301)하는 것이다. 앞의 무용 학습 내용에서 언급하였듯이 9개의 차시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에서도 음악을 보다 넓게 이해하기 위해 움직임을 활용한다. 박자에 맞춰 손뼉을 치거나 발을 구르는 리듬놀이 활동을 통해 박자에 대한 표상을 정확히 갖고,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또 음이나 소리의 높이를 몸동작으로 표현하는 소리놀이 활동을 통해 소리에 대한 감수성을 발달시킨다. 나아가 노랫말을 울동으로 표현하는 노래형상 활동을 통해 “가사의 내용에 맞게 동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곱게 부를 줄 아는 능력”(안영옥 등, 2013:6)을 기른다. 이러한 활동은 5개의 소단원에서 이루어진다.

학습 주제와 학습 방식의 유사점은 초등 무용교육에 대한 남북한의 인식에 동질적 요소가 있음을 보여준다. 주변 환경이나 대상을 관찰하고 모방하는 기초적인 표현으로부터 무용교육이 시작하는 점과 리듬, 음높이, 노랫말 등 음악적 요소를 움직임으로 표현함으로써 음악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는 점은 남북한 무용교육이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관점이다. 앞으로 교과서 비교연구의 범위를 중·고등학교로 확대하여 진행함으로써 남북한 학교 무용교육에 제시된 틀과 그것의 함의를 폭넓게 도출하고, 남북한 교과교육 통합방안 마련에 일조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남한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와 북한 소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타난 무용교육 영역의 비교연구를 통해 남북한 무용교육의 상호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교과서 구성 및 체재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한은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의 교과가 통합된 주제별 교과서를 사용하고, 북한은 음악과 무용 교과가 통합된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었다. 남한은 총 4권의 교과서를 사용하고, 전체 172개의 차시 중 11개의 차시, 즐거운 생활 교과 163시수 중 16시수에서 무용 학습이 이루어졌다. 북한의 경우 1권의 교과서를 사용하고, 전체 22개의 소단원 중 18개의 단원, 음악무용 68시수 중 34시수에서 무용을 학습하고 있었다. 교과서 지면 활용에 있어서는 남북한 모두 지시문과 삽화를 활용하였으며, 차시별 주제에 맞게 유동적으로 지면 배치를 한 남한과 달리 북한은 악곡, 음악 학습, 무용 학습의 순으로 소단원별 지면을 동일하게 배치하였다. 또한 북한은 남한 교과서에는 없는 동작의 단계별 실행 방법을 그림으로 상세히 제시하였다.

남북한 무용 교수-학습 내용을 비교한 결과, 무용교육의 목적 및 학습 목표, 학습 내용, 교수-학습 과정, 어휘 측면에서 남북한 무용교육의 차이점을 발견하고, 학습 주제 및 학습 방식에서 유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무용교육의 목적 및 학습 목표 면에서, 남한은 다양한 표현 활동 그 자체가 학습의 목적이 되는 반면, 북한은 무용에 대한 기초 지식과 실기 능력을 갖추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러한 목적 아래 남한의 무용 학습내용은 노래와 더불어 이루어지거나 창의적인 신체 표현 학습에 집중하여 수행되었다. 북한에서도 음악을 수반한 무용 학습을 하였으나 전문적인 무용 동작을 배우는 점이 남한과 달랐다. 교수-학습 과정 면에서, 남한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자유롭게 표현 놀이에 참여하며 다양한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지만, 북한은 교사가 수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단독적,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남한은 ‘몸으로 표현해요’, ‘흉내 내어’, ‘따라해’, ‘이야기해요’, ‘설명해요’와 같은 어휘를 자주 사용하고, 예술 창작 과정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 북한은 ‘동작한다’, ‘수행한다’, ‘정확히’와 같은 어휘를 자주 사용하여 동작 위주의 학습 내용을 반영하였고, ‘춤’, ‘춤추기’와 같은 어휘를 사용하여 특정 동작을 수행하는 것이 무용 활동

임을 주지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동일한 주제로 표현 활동을 하는 유사점과 음악을 수반한 움직임 교육을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단절된 세월 속 정치적, 이념적,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남북한 교육의 목적, 지향점과 그에 따른 학습내용이 상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이 음악 교과를 음악무용 교과로 개편하고 『음악무용』교과서를 제작한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이며 남한의 학교 무용교육 개선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남한에서 무용은 즐거운 생활 교과와 체육 교과 내 표현 영역에 포함되어 정식 교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주제 학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움직임 창작 과정, 즉 안무의 과정을 경험하지만, 그것을 무용예술이라는 개념 속에서 설명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하여 무용교육의 경로가 확대되었으나, 무용만이 아닌 모든 예술장르 및 문화 활동에 개방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선택받지 못한 예술은 경험의 기회가 소멸될 위험이 있다.

본 연구는 최근 남북한 학교 무용교육의 동향을 파악하는 자료이자, 남북한 초등 무용교육이 갖는 동질성과 이질성의 요소를 이해하는 자료로서 가치를 갖는다. 이 연구가 남북한 무용교육의 통합을 위한 담론 형성에 촉매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표현적 수업에 집중하는 남한과 기능적 수업에 집중하는 북한의 무용교육에는 장단점이 있는바, 이러한 상호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남북한 초등무용 통합교육을 대비하여 교과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무용교육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에서 더 나아가 앞으로 무용교육이 통일교육 및 남북한 문화교류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 교육부(2017a), (초등학교) 가을: [2015 개정]. 1-2, 서울: 교학사.
- \_\_\_\_\_(2017b), (초등학교) 겨울: [2015 개정]. 1-2, 서울: 교학사.
- \_\_\_\_\_(2017c), (초등학교) 바른 생활·슬기로운 생활·즐거운 생활: 교사용 지도서: [2015 개정]. 1-1, 서울: 교학사.
- \_\_\_\_\_(2017d), (초등학교) 바른 생활·슬기로운 생활·즐거운 생활: 교사용 지도서: [2015 개정]. 1-2, 서울: 교학사.
- \_\_\_\_\_(2017e), (초등학교) 봄: [2015 개정]. 1-1, 서울: 교학사.
- \_\_\_\_\_(2017f), (초등학교) 여름: [2015 개정]. 1-1, 서울: 교학사.
- 김도일(2013), “남북한 교과서 비교분석을 통한 통일교육 모색을 위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장신논단** 45(1), 205-231.
- 김연아(2019), “남북한 중학교 미술교육 통합방안 연구: 미술교육과정 비교 및 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용경(1989), “북한의 무용예술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운미(2003), “1970년대 남·북한 무용교육에 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 **한국체육학회지** 42(4), 539-551.
- 김인선(2015), “김정은 시기 소학교 음악무용교과서 연구: 2013년 발행 소학교 1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북한대학원대학교.
- 김한초(1986), “북한의 민속가행10: 함북 재가증마을의 가면극 주지춤놀이”, **북한연구소,北韓** 174, 138-141.
- 박은희(2002), “1960년대 남·북한 무용교육의 현황 비교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서현진(2005),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음악교과서의 통합 방안 연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승윤희(2017), “북한의 1학년 ‘음악’ 및 ‘음악무용’ 교과서 내용 비교를 통한 교과서의 변화 양상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 847-872.
- 안영옥, 양월미, 장명숙, 신은영(2013), **음악무용교수안: 소학교, 제1학년**,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_\_\_\_\_, \_\_\_\_\_, \_\_\_\_\_(2014), **음악무용: 소학교, 2**,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_\_\_\_\_, 장명숙, 림옥화(2013), **음악무용: 소학교, 1**,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엄현숙(2018), “북한 주민의 사회적 역할 연구-소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8, 423-436.

- 육일남(2014), “남북한 사회과 교과서 비교 분석을 통한 상호이해교육방안 탐색”,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사회과교육 53(4)**, 1-27.
- 용미리(1991), “북한무용예술의 변천과정과 특징”,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관규(2016), “남북한과 중국조선족의 문법 교과서 비교 연구”, 국어교육학회, **국어교육학연구 51(3)**, 155-183.
- 이병옥(2001), “북한무용의 동향과 전망”, 한국동양예술학회, **동양예술 3**, 51-74.
- 이선경(2001), “남·북한 무용교육의 비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화영, 임미인  
김주창(2018), “남북한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의 학습 내용 비교 분석-1,2,3학년을 중심으로-”, 대한수학교육학회, **수학교육학연구 28(4)**, 623-650.
- \_\_\_\_\_, \_\_\_\_\_,  
\_\_\_\_\_,  
이환철(2018), “남한과 북한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의 구성 체제 및 학습 내용 비교”, 대한수학교육학회, **수학교육학연구 28(3)**, 367-394.
- 임재해(1996), “남북한 꼭두각시놀음의 전승양상과 해석의 비교연구”, 한국구비문학학회, **구비문학연구 3**, 475-557.
- 정미래(1997), “북한의 무용예술 사상”, 창원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창원대학교 경남체육연구 2(1)**, 117-128.
- 진용성,  
차해나(2018), “북한 소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2013)와 남한 초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2017)의 비교 연구”, 청람어문교육학회, **청람어문교육 66**, 59-83.
- 한경자(2005), “남북한 무용의 형태 변화 비교”,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16(2)**, 115-131.
- 황경숙(1994), “북한무용의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철학회, **한국체육철학회지 2(1)**, 113-130.